



시민 구원행렬을 펼친 전도자들의 간결한 기도

2000년
7월 15일
제 23 호

(1998년 9월 15일 창간)

춘천성시신문

- 전시민 전역의 복음화 운동
- 기독교 연합운동
-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 민족복음화 전략도시 운동
- 세계복음화 지원운동

발행·인쇄인: 조남진 편집인: 조중환 (200-091) 춘천시 효자1동373-90 대표전화 (033)256-1260-1 FAX(033)257-1260

춘천성시화 한걸음 앞당긴 대시민 총력전도

- 조기청소로 시민과 접근, 전도로 시민의 지옥행렬차단 -

1972년 시작된 춘천성시화의 결실을 위해 기독교연합회와 성시운동본부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91년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초교와 교회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순천복음회와 성시와 나라와 민족, 이웃을위해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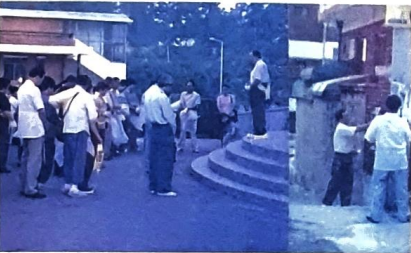
지난 7~9일 실시한 총력전도는 작년말 구상되고 기독교연합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졌으며 성시본부와 대학성신교회연합회가 일을 맡아

추진했다. C.C.C.의 잘 훈련된 대학생전도자 1천1백명과 64개 교회에서 지원한 6백4십명이 타오르는 사명감을 갖고 3일간 현장전도에 투입되었으며 노년, 장년, 대학생, 중교생 등 다양한 계층의 참가로 한국교회의 밝은 비전을 보여주었다. 이번 총력전도에 참가한 교회들은 전도자들의 침식과 협력에 정성을 쏟았으며 동연회회는 취사등에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을 재정적인 지원으로 전도에 동참케 하므로 큰

교회가 작은교회를 돕는 미덕을 보여주었다. 총력전도 결과는 전도자들 통해 시민 5만명 이상을 접촉했으며 7천여명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고 3천3백명의 결신자를 냈다. 연합회 관계자는 양적인 성과보다는 교회의 연합된 모습과 시민구원의 전도불조심, 전도열기 확산, 젊은층의 대거 참가가 더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또, 성시주관을 실천하고 조기청소, 조찬기도, 직장기독교인선교대회, 총력전도 모

든 교회와 선교기관 단체들이 성시화의 일꾼으로 나섰으며 대학생전도자 수송을 위해 모든 교회가 자원해서 버스를 지원했다. 이번 총력전도의 경험으로 모든 교회 성도들이 전도에 자신감을 얻게 된 것이 큰 교육이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7월9일 밤 호반체육관 대강당에서 초청강사 최성규 목사(인천순복음교회)의 능력있는 메시지는 결신자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굳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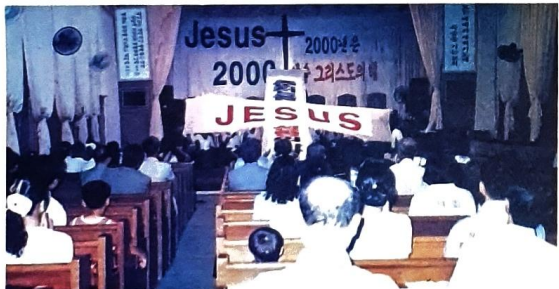
우두감리교회 초청 성시화기도모임 은혜충만

- 김영원목사 설교, 백합성가대 찬양, 기도모임 새모습 -

6월22일 저녁7시30분 우두감리교회(김영원 목사)에서는 춘천성시화 기도모임(대표 허종구 장로)을 본교회로 유치해 초교와 성도들과 함께 국가와 민족, 세계선교, 평화통일과 이웃들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했다.

이영규장로의 사회로 성낙찬장로 기도, 백합성가대의 특별찬송과 이학규 장로의 인도로 합심기도를 드렸다.

복음의 종언들 이란 김목사의 설교말씀은 깊은 깨달음과 도전을 주었으며 성도들의 헌금으로 성시화운동을 도왔다.



국가와 강원도정을 위한 조찬기도회 열어

- 김진선도지사, 김병두교육감, 허천의장, 김창수감독 설교 -

강원도 의회 의원기독교인연합회(회장 조규병장로)는 7월4일 아침 6시30분 도청 앞 공영빌딩 5층 대회의실에서 기관단체장, 도의원 및 도청직장장수교회원, 목사, 장로 등 기독교계지도자 1백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은사를 간구했다.

이번 예배는 김창수감독(신성교회)의 설교와 김병두교육감(영월교회)기도, 박성호목사(제일교회)의 국가발전과 복음적 평화통일, 조남진장로(성시화운동본부장)의 강원도 발전과 춘천성시화를 위한 특별기도가 있었고 성시찬양단의 아름다운 찬양이 더해졌으며 도의회의 장 허천장로가 사회를 맡았고 임태창목사(석사교회)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김진선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기독교인들은 이해관계가 없고 누가 시키지도 않지 않는 국가와 사회,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어릴적 에도 익혀 들어왔더라면 강원도정을 위해 기도회를 마련한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예배 후 조찬

은 김진선 도지사가 마련했다.



강원도청선교회 총회 및 감사예배

- 창립10주년기념, 새회장 김영명안수집사 -

강원도청직장선교회(회장 김봉옥안수집사)는 7월3일 오후6시30분 도청 상황실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차기 회장단을 선출했으며 피직

회 회원(김봉옥, 송윤기)에게 기념패를 증정했다. 이날 창립10주년기념 감사예배는 조중환목사의 설교와 임원들의

특별찬송, 단찬이 있었다. 회장-김영명안수집사 부회장-최형성피목장로, 이명숙집사

최성규 목사 춘천성시화운동 후원금 전달

지난 7월9일 오후7시30분 춘천성시화운동 춘천전도대회의 강사로 초청받고 춘천에 온 인천순복음교회 최성규목사(순복음교단총

회장, 청산초대학원대학총장)는 춘천호반체육관 대강당에서 설교하고 귀가도중 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 조남진장로를 만나 전국

로 확산되고 있는 춘천성시화운동에 사용돼 달라며 후원금 50만원

하나님이 세상을 ...



송영진 목사

대전충청신학교교회
대전기독교교장선교연합회
한국기독교교장선교를 편집교본

올해는 6.25전쟁이 일어난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50년
전 그날도 올빼미처럼 주일 새벽이
있었습니다.

"아! 이따위 어찌 우리 이 날
을..." 50년전 지난 과거의 쓰라
린 상처를 되짚어 보자는 것은 아
닙니다. 상처를 잊어버리는 것은
중심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만큼은 잊지 말자는 것
입니다.

우리 잘못으로 불행은 또다시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
살이 하던 때의 고생스런 삶을 잊
지 않기위해서 애마다 유월절이
되면 쓴나물을 먹습니다. 그때의
일을 기억하며 교훈을 주기 위함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끄럽게도
술 소비량이 지금 전세계에서 1.2

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은 국민이
먹고 마시는 일에 온통 정신이 팔
려 있는 듯 합니다.

이제 6.25의 교훈을 되새기면
서 우리 모두 본문(요3:16-21)
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을 향해
신 한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실
시다.

첫째, "사랑..."
둘째, "마음..."
셋째, "방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심
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
나님의 뜻이 다지는 6.25와 같은
처참한 파괴와 참혹한 인간의 죽
음으로 깎발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큰 국
민적인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남북

일일 것입니다. 조국이 이대로 분
단된 채 같은 민족끼리 총탄을 맞
고 싸우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남북통일 문명은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공포와 불안에서
해방되어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
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
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조
국을 우리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충만히 임하게 되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기총 '새천년 통일·북한선교 의지표명'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만신목사)는 7월 3일 배추년기념관에서 '새천년 선교포럼'을 개최하고 한국교회와 한 통일방향과 민족복음화

나 "교회는 교회대로 통일선교문과 재정집, 선교전과
의 단계적 수립, 전문가 양성 등 실천적 측면에서 치
밀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내 놓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을 토대로 참석자들은 기독교인들이 통
일을 위한 주체역이 될 것과 마음까지 하나되는 통
일선교, 통일문화조성, 기도모임결성 등 통일과 북한
선교를 다지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포럼은 박영복목사 사회로 정남일목사(한기
총선교위원회)개회사, 박관선박사 주제강연, 박관선박
사(북한연구소 상임연구원), 유관지목사(목장교회),
최경일목사(한기총통일선교정책위원회) 주제토론
등 이어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오늘 교회의 심각한 문제와 영적성숙

1960년대 유명한 복음주의자이며 교회의 선지자
적인 역할을 감당한 토머스 모놀리는 교회에 새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첫째는 믿는자가 성경
하지 않고 항상 이념이로 머물러있으며 다만 삶만
전도한다. 둘째는 믿는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오직 참관만 하는 것입니
다. 셋째는 믿는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
품한 일삼는 것입니다. 토머스모놀리는 이것을 오늘날 교
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할 때 만이 가능하
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나이가 많을수록

야 하며 나이가 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세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초점
을 그리스도에게만 고정시킬 때 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중의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는 가능한 것이 아니
나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길, 즉 은혜인 것입니다. 주
님께서는 성령하로써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
의 기반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사설

전도명령 수행한 그리스도인들

춘천시민은 한사람이라도 지옥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자는 총력전도운동이 춘천전역에서 일어났다.

이는 시민을 사랑하는 교회와 인도적
이고 영적인 신앙운동으로써 그동안 독
선적이고 편협했던 이익 집단적인 교회
의 이미지를 벗고 새롭게 출발하려는
교회와 몸부림이라고 할 것이며 더욱
의미있는 것은 초교회 교회를 대표하여
기독교연합회가 창설되고 70여 교회가
동참한 연합적인 전도운동이라는 점이
다.

메타적이고 개교의 우선적 시고에 첫
어디던 교회들이 아집과 교만, 자존심을
잡고 연합의 광장으로 나와 복음전도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이겠다. 교회 연합의 진주곡이
다시 말할 수 있겠다. 직접 전도에 참
가하지 못한 교회들은 치량과 재정지원
으로 연합전도에 동참하고 어려운 교회
가 전도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등 서로 돕는 모습은 진정한 연합의 의
미를 부각시켜 주었다.

출천시민을 지옥까지 못하게 하는 건
도시의과 연합하는 일이 금번 총력전도
를 출발점으로 중단없이 계속되기를 기
대하며 도시 성시화운동의 발상지인 춘
천에서부터 명실상부한 교회연합이 이
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제 지도자의 믿음과 능력, 인격의 기준은 교회의 연합을 위한 사역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남북이 분단 후 55년 만에 정성회단을 성사시켰고 화해와 상호협력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

남북정상의 대화를 들으면서 진정한 교회의 연합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연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의 변화를 촉구한다

금번 복음전도사역에 전력을 기울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춘천 성시화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지옥행의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하는 담대하고 용기 있는 전도자들을 보고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도전을 받고 "전도"를 믿음의 새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는 믿음을 확고히 한다면 춘천 도성의 성시화 목표달성은 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다.

잡들어있는 춘천의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 깨우시고 진도할 수 있도록 훈
련시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에 배운 진도전략과 열기를 잠재우지
않고 춘천에 사는 이웃들이 지극까지
못하게 하는 일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진도에 전력 투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야 예수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철저
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란다.

聖市漫評

김춘배



시민의 생활속으로 다가가는 교회

교계단신

- **춘천지역장로교회(박성복목사)**는 7월24~26일 2박3일간 남평면하리 기와유스홀스에서 전교인 여름수련회를 개최한다.
- **순복음교회(김주환 목사)**는 7월22 오후7시 만천상성전에서 사업가 축복을 위한 기도회와 동신교회 임원단 합동기도회를 열었으며 초급3개월 과정으로 '부부 행복학교'를 개설했다.
신침자말씀은 7월16일이다. (담당-이영숙전도사)
- **춘천명회감리교회**(한 균 목사)는 초동부 대상으로 7월23~26일까지여름성경학교를, 30일부터 8월2일까지 고교생반대강에서 전교인 하계수련회를 가진다.
- **춘천중앙로교회**(사공 정 목사)는 6월4일 전교인 야외회 및 봉사활동을 위해 총천리회로 오만교회에서 Bibel, 금융, 교육, 이미용등 무로분반을 실시했으며 7월16~18일 본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를 열고 8월25,26일 강릉일원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가질 예정이다.
- **춘천성암교회**(김창수 목사)는 7월26~29일까지 양구학생수련원에서 '면목은 움직이는 거야'란 주제를 가지고 중등동부 여름수련회를 가진다.
- **춘천성암교회**(윤철중 목사)는 7월3일부터 5일까지 본 교회에서교단교역자를 관상교 2교인(윤철중목사,신성환목사)과신정교회신정세미나를 연다.

하장여 춘추지역 연합회 총회 개최

한장면 춘천지역연합회(회장 장효근목사)는 6월30일 제1장로교회에서 총회를 열고 정부회장과 임원을 선출했으며 약간명의 부회장,협동총무를 두기로하고 임원회에 위임했다.

- | | |
|-------|-------------------|
| 회 장 | 박성호 목사(춘천제일장로교회) |
| 상임부회장 | 사금 짐 목사(춘천중앙장로교회) |
| 부 회 장 | 김성식 목사(한신장로교회) |
| | 김홍구 장로(동부장로교회) |
| | 장병호 장로(제일장로교회) |
| 총 무 | 노덕현 목사(친천장로교회) |
| 부 총 무 | 한남수 장로(서산장로교회) |
| 서 기 | 지용한 목사(은혜장로교회) |
| 부 서 기 | 문정심 목사(사우동장로교회) |
| 회 계 | 이창식 장로(동성장로교회) |
| 부 회 계 | 최규수 장로(한빛장로교회) |

부산고등법원장 양이평장로 30년 공직생활 청산
- "로고스" 변호사업 9월 서울서 문열고 전국성시운동매진 -



양인평 장로
(부산고등법원장)

년 6월에 부산성시화운동본부 창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제 그는 크리스찬 법무법인 창설을 준비하고 있으며 9월경 서울에서 "로그스"란 변호사사무소 개업 예정이다.

양인평 장로와 전용태 장로(변호사)는 15인의 크리스찬 변호사들과 함께 공직생활 중 못다한 전국성시화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믿음을 보이고 있다.

춘천열린교회 새성전
입당예배 드려

열린교회(신성균목사)는 7월9일 오후4시 춘천시 퇴계동 426-8번지에 새성전을 건축하고 온의동 지하교회에서 이전, 새성전입당 감사에 배를 드렸다. 이날 입당예배에서 "교회의 사명"에 대한 김석규목사(속초교회)의 설교와 예일

신학대학원대학 총장 문선재목사(전 강원대총장)의 축사가 있었고 초교파 목사,장로,교계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참여, 주님께 감사드리고 축하했다.



6월 14일 태국선교사 윤수길목사 본사 방문기념 촬영



7월 7~10일까지 춘천총력전도에 나선 대학생들.
광영장로교회(조득용 목사)에 배속받은 팀

선교회 소식

▶**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회장 허종구장로)는 임기 1년차 총회를 개최했고 운영위원장 인사예배를 6월28일 오후 5시 중앙성경교회당에서 드렸다.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순복장로)는 6월24일 동부장로교회에서 열린 제7회 춘천지역 어린이연합장기예회 월드비전 춘천어린이합창단이 찬송출연했으며 7월13일 오후 7시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월드비전 창립50주년 기념 국제합창연주를 가졌다.

▶**대천기독교장로장교연합회**(회장 김정대장사)는 6월29일 오후 7시 대천시 동부교회에서 4층 회회실에서 6월 정기예배를 드렸다.

▶**한국유리교회연합회** 신윤호 회장은 8월3~5일 2박3일간 원주시 신림면용암리 제2기나리농학교에서 제1차 전국수련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수전도단 사역자들에게 힘을 주세요!

예수전도단(Youth With A Mission) 춘천지부가 성도여러분의 작은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김봉욱 목사(대표장사)는 항상 전도활동과 그 성과에 힘입어 최근 5명의 전사를 세키구로 맞이하여 작은 사무실 겸 생활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필요한 도움 - 기본적인 취사도구 및 종교가전제품, 중고가구, 중고 불고(12인승) 등
연락처: 252-1128 / 016-225-2202 김봉욱 목사
e-mail: kbongwook@hanmail.net
춘천시 후평3동 831-11번지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어린이전도협회 여름 프로그램

★교사를 위한 35일 클럽 전도자훈련

어린이전도협회 춘천지회는 3일동안 매일 한시간 교회주변의 잃어버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구원상담을 통해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전도 프로그램입니다.

4박5일간 새롭고 효과적인 전도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대 상 - 교회교도 교사들과 관심있는 분

일 시 - 8월1일~4일(합숙)

장 소 - 본회 훈련장

훈련비 - 6만원

★어린이 세례식 성경캠프

어린이와 일대일 구원상담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을 돕는 실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결단하시고 보내세요.

대 상 - 어린이

일 시 - 8월8일~11일까지

훈련비 - 6만원

신청 - 033253-1443 / 017-378-1349 / 016-365-1514

춘천시 호저2동 312-1 베드로병원 4층 어린이전도협회

정정

6월 성시신문 "세법결" 기사에서 김진석 홍천제일감리교회 담임목사 약력 중 협성신학대학교 졸업, 감신신학교대학원 수학으로 정정합니다.

춘천지검 검사장 채수철 장로



채수철 장로
(춘천지검 검사장)

전북군산 출신으로 전주교과와 서울대 법대, 동대학원을 졸업, 제15회 사시합격(연수원5기), 가족은 부인과 1남1녀가 있다.

7월10일 법무부의 발령으로 춘천지검장에 부임한 채수철(蔡秀哲) 장로는 대검형사, 강력부장에서 자리를 옮겼다.

蔡검사장은 77년 춘천지검주지정에서 검사생활을 했으며 88년 원주지검장으로 부임해 3년동안 근무한 바 있다.

교계지도자들은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교회장로로써 재임기간 춘천성서화운동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용태 전전시장 장로를 떠올리며 관심과 기대를 보이고 있다.

하나님의 뜻에 알맞은 기도를 드리자



이무식 장로
(석사감리교회)

철부지 어린이가 공원의 예쁜 꽃을 꺾어 달라고 보챌때면 엄마는 안된다고 하면서 저 예쁜 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있는 거란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나만을 위해 욕심으로 기도한다면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지 않고 나만 잘사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죽어가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구별하여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만약 가족끼리 소풍을 가려는

데 비가 올 것이라는 일기예보를 듣고 오늘 우리가족이 소풍을 가는데 비오지 않게 해주세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 이놈아, 지금 비가오지 않으면 식물이 마르고 제한급수를 해야 할 것인데...'라며 이리저리 자여라고 할 것입니다. 철없는 기도자들, 언제 철이 들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기도할때 내구미, 내신앙에 맞추거나 기적을 바라고 이용하려고 해서 안됩니다. 기적만 보고 믿는다면 기적이 없을때 믿음도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드리고 복음전파에 목숨을 거는 사명감의 기도에는 기적과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로서 나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도 중요한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더 절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남을 위해 쓰기를 좋아하는 것이 고상하고 성숙한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나보다 남을 생각하기 위해 기도하며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셨습니다.

강원노회 주일학교교사 강습회 열려

예정합동 강원노회 주일학교연합회(회장 전은봉장로)는 7월5~6일 춘천제일교회

로교회에서 여름강습회를 위한 주일학교 교사강습회를 가졌다.

정용진목사·양명환목사 박사학위 취득 감사예배

정용진목사(홍천장로교회)와 양명환목사(홍천만민교회)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교신학연구원 교수목회학 박사학위에서 수학 후 TRINITY신학대학원에서 2년간 수학, 정용진목사는 "한국교회초기 감리교회와 경로교회의 성장에 관한 연

구" 양명환목사는 "교회성장을 위한 세신자 과정에 대한 연구" 논문으로 목회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7월14일 성남대원교회에서 목회학 박사학위 취득 감사예배를 드렸다.

허천장로 제5대 강원도의회 의장 재선

-부의장 이상준,이훈의원 당선-



허천 장로
(강원도의회 의장)

도의회는 7월11일 제1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의장에 한나라당 허천(춘천)원의장을 선출했고, 부의장에 이상준(삼척), 이훈(강릉)의원이 당선됐다. 이들은 모두 도의회기독교신우회원으로 후반기 도

의장은 물론 신앙운동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 예상된다. 허천의장은 춘천신성감리교회 장로이며 춘천성서화운동의 주요 멤버로써 춘천의 목회화와 성서화운동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전국 장로연합회 수련회 개최

예강(합동) 전국 장로연합회는 오는 8월 대성으로 황성현대리조트에서 하계수련회 21~23일까지 전국 3천명의 장로회원 수련회를 개최한다.

용천교계 소식

▶**용천군신우회**(김자경 회장)는 7월12일 정오 용천군 서석면 풍암리 태동갈비식당에서 이복배 목사님(용천성서감리교회)을 강사로 모시고 직장신교와 복음화, 초교파적 교회일치를 위한 기도회회를 가졌다.

▶**용천동, 서지방 교사강습회**

6월29일부터 30일까지 용천동장교회(신동진목사)와 용천만민교회(양명환목사)에서 여름강습교과 준비를 위한 교사강습회를 실시했다.

▶**용천정년선교회 용천동지방연합회**(회장 이상훈)는 7월10일 오후 7시30분 용천성서감리교회에서 3/4분기 헌신예배를 드리고 성서기결산보고회 및 하반기사업추진세부계획으로 헌신예배, 용천동, 서지방 연합체육회, 등반대회, 이웃돕기를 하기로 했다.

▶**용천동, 서지방 학생의 여름수련회**

용천동·서지방 학생회는 7월24~27일까지 용천을 장전령리 장전교회(정재권전도사)에서 동·서지방 교육부(박제서목사)주관으로 연합여름수련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용천서지방(연계감리사)**은 7월10~13일까지 용천연예부리 만민교회에서 이상우 목사(안산만남교회)를 강사로 초청 "성령으로 충만하여 새천년에 주역이 되자"란 주제로 연합부흥성회를 가졌다.

이상준 명예기자단 용천지부장



▲용천군신우회가 용천영주교회(윤순식목사)에서 2/4분기 헌신예배 드리는 장면

6월 성시선교 후원자 명단

★장기후원자님★

왕순옥 안장숙 이병현 성기는 정유양 최상호 한희현 안이애 홍순복 임은정 정순녀 김진원 최경용 이준택 허정용 정찬복 조정임 홍정은 정용현 평평환 오홍수 박동환 조정국 김기태 엄필남 유태희 윤진옥 장기영 정석순 민병일 김남길 민영원 김영명 이학규 한순수 유근장 조남진 조충환

★평생후원자님★

이병환

본지는 하나님 교회와 문서선교를 위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많은 후원자를 기다립니다.

성시후원자과 (예금주-조남진)

우체국 200022-02-128749 (변경명 기재번호입니다)
농협 203-02-280238
조흥은행 716-01-001389
제일은행 625-20-265119
국민은행 301-01-0585-522

★초파후원교회★

춘천일신장로교회(이은주 목사)
춘천늘사랑장로교회(정재호 목사)
춘천안문순복음교회(김길홍 목사)
춘천열린교회(신성균 목사)
춘천순복음제일교회(하기철 목사)
춘천소양성결교회(이원호 목사)
춘천석사감리교회(임태창 목사)
순복음춘천교회(김주환 목사)

★단체후원자님★

신중철(유성건설)
이익래 조순옥(솔로몬기독교)
이윤규(영광환의원)
조은제(베드로병원)
이판호 윤영순(알로에미인)



춘천신복장로교회 김지현 목사는 6월29일 성서기도모임을 주관했으며 성서화운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성시신문 명예기자단장 김동철목사는 6월27일 제7회 평화감리교회 사무실에서 명예기자단 모임을 갖고 우수명예기자를 선정, 기자증을 발급하고 격려했다.



총력전도대회를 위한 실행위원회의 7월7~10일 총력전도대회 준비를 위해 5월부터 매주 협의회의를 가졌다. 기독교연합회 수석부회장 김주환목사, 부총무 박성호목사 등 임원들의 지도와 격려가 있었다.



총력전도 참가교회 설명회 5월29일부터 C.C.C.아카데미하우스에서 3차례 설명회를 가졌다.

70년대 충청성시화 주역들의 어제와 오늘을 듣는다



윤수길 전교사

윤목사는 70년 C.C.C.전국대학생선교회 충천주제 강사로 있으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성경공부와 기도운동을 벌였고 중앙강리교회에서 "평신도신학"을 개설, 특강을 했다.

이때 윤목사의 강의를 듣고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많았으며 조남진 장로, 당시 강령일보 기자는 윤목사의 강의를 듣고 도전을 받아 신앙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고 그의 교통자택에서 성경공부 모임을 시작했다고 회고했다. 또 당시 강원도 교사인 문선재 목사(현 예일신학대학원대학 총장)는 다방에서도 기도하는 윤목사의 믿음을 보고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윤 목사의 영향을 받아 신앙활동을 했던 젊은이들이 많았으며 그들의 신앙활동으로 성시화운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겠다.

72년7월30일 충천실내체육관에서 열

린 전국대학생선교회에서 김준곤 총재에 의해 온도시를 복음화로 성시화(聖市, Holliness City)하자는 말이 나왔으며 학생들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전도 열기를 발산했고 교회의 동향으로 충천성시화운동 추진위원회를 조직해 위원장에 김연호 목사(전 중앙강리교회)를 위원장에 추대,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했다. 윤목사는 70년부터 73년까지 충천에서 사역한 후 서울본부로 자리를 옮겨 대학부 간사를 맡아보았으며 민족복음화와 지구촌 선교를 위한 "Explo74" 운동을 담당했다. 80년 KIM선교단체를 통해서 태국선교에 나섰으며 83년 지구촌 선교

회를 조직하고 89년 GP선교회로 통합되었다. 89년 태국방북에 태국복음선교회를 세우고 학장이 되어 현지인 목회자 양성에 전력을 쏟고 있다. 현재까지 13명이 졸업했고 졸업예정자가 17명이다. 또 인턴쉽(Internship)4명, 재학생 13명, 금년신입생 24명, "우분본고" 학생 23명을 양육하고 있다.

99년 6월부터 "오, 프라논(놀라운 은혜)교회에서 시무하고 있다. 그는 전남 함평군 해보면 삼곡리 태생으로 70년 서울대 문리대 종교학과를 거쳐 78년 충신대학에서 수학했다. 부인 한태희 선교사와 사이에 세 아들을 두었다.

일본 성신중앙교회 방문기

- 불붙은 성령운동 동양의 펜사콜라 -
- 초대교회역사 나타나 부흥운동기대 -



조남진 장로
(충천성시본부장)

찾아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렇게도 낯익은 교집합이 깨닫기 어려웠다. 당시자 인 이들은 신학교에 진학을 하고 부모인 나카무라 부부가 교회에 절대헌신, 새 성전을 짓는 건축위원장을 하면서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목사, 전도사들 교역자들도 모두 특별한 계기로 예수님을 영접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로 대단한 열정과 믿음을 신신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이와같은 모든 일은 담임목사인 나카다(永田)목사님의 절대헌신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계신 증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카다 목사님은 장단일에서 기도처소를 마련해 놓고 방앗간을 가리지 않고 시간 내 있으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였으며 기독교의 선진국인 한국의 발전하고 있는 교회를 수시담당 연구하면서 오늘의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찬미가가 이색적이었는데 우리나라 찬송가를 가사만 일본어로 바꿔왔을 뿐, 곡선이 똑같이 양곡성도가 함께 찬송을 불러도 아무 지장이 없는 한, 일 합동찬송가를 제작해 쓰고 있었습니다. 나카다 목사님은 이 찬송가 간행사에서 신앙의 선진국인 한국교회에서 배울점이 많아 한국찬송가를 그대로 일본어로 옮겨 발행하게 되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현재 성도수 5백명의 일본에서는 큰교회 새성전 건축과 함께 1천명 2천명으로 늘어나면서 1억3천 일본인 구원운동의 책임을 지고 나갈 큰 꿈을 가진 교회를 방문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큰 감동이었습니



충천장로연합회(회장 허준주장로)는 7월5일 오전 11시 충천성시본부를 방문하여 충천성시신문과 충천전도대회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총3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좌로부터) 허준주회장, 조준환사무총장, 박한범총무, 이무성장로, 정지수장로



민관군연합기도회 6월25일 오후3시 충천순복음교회 만천성전에서 6·25준비대첩 50주년 기념 민관군 연합예배를 2군단장,연대장등 군인 5백여명과 충천성시,목사,장로들 125명 명이 함께 드렸다.

"숫돌을 머리 위에 싣아 놓아라" (롬12:20)



변석규 목사
(충천성시본부장)

하지만 적을 대적하는 그의 전략은 남다릅니다. 자신의 프로그램을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의 전략입니다. 최소한의 생활유지비만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남에게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철학입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 먹어라"가 그의 좌우명이 되는 셈이지요. 리눅스 인터넷 사용자들이 그를 인터넷 황제로 부르지는 아니하고 인터넷 성자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 문화의 상업화와 맘몬이즘에 대한 경고의 소리는 아닐런지? 깊이 마음에 새겨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세상엔 잘못된 사람들이나, 미워하는 사람들 또는 원수들에게 대항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라"는 말이 있지요. 유대인 율법엔 "이제는 이 눈에는 눈의 보복의 원리가 지배적입니다. 너 아니면 나, 둘중의 하나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극단적 방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사상에도 불구하고 슬로

몬은 달랐습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하면 너는 식물을 먹고 고기를 먹지 말고 목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편 숫으로 그의 머리 위에 놓는 것과 일반이라. (잠언 25:21-22) 많은 성서학자들은 "편 숫을 머리 위에 놓는" 사상에 대한 배경을 고대 이집트의 풍습에서 찾고있습니다. 이집트 풍습 중에 어떤 잘못을 저지른 자가 회개의 표시로 머리 위에 활판 다오르에 숫돌(coals)을 담은 쟁반(pan)을 머리에 이고 나르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와같은 관습에서 볼 때,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숫돌을 그의 머리 위에 발아 놓으리라"는 바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원수를 공회하 여기고 사랑함으로써 악을 이기되 악인이 회개케 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승리를 깨닫게 됩니다. 지난 7월 7일-10일 62개 교회와 한국대학생선교회 전도요원 1,100명이 충천성시와 충천전도대회를 위해 활판 다오르는 숫돌을 충천도성에 올려놓았습니다. 장차고 있던 교회를 깨우고, 교회 안과 밖의 원수들을 회개시키기 위해 복음의 불을 지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못해 뱀집에 있는 "군대

(Legion)"를 위해, 성령의 단비를 마시지 못해 거칠게 갈라진 대지를 적시기 위해 모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한 영혼들은 모두 하나님의 적이요, 우리의 원수들을 깨달으면서 전갱터에 나가 힘써 싸웠습니다. 하지만 원수를 대적하는 전술은 "이제는 이 눈에는 눈의 전략이 아니라 사랑의 원리와 나눔의 전략을 통해서였습니다. 먹을 것을 주되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을 주었으며, 마실 것을 주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령의 생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생수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풍성히 넘쳐흐른다는 은혜의 원리를 체험하면서 말입니다. 광범한 심령, 돌덩이처럼 냉정한 심령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회개의 역사는 오직 성령의 숫돌을, 사랑의 숫돌을 지옥의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심령이라면 십자가를 통하여 정화된 성령의 숫돌, 사랑의 숫돌로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들을 태워버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십자가의 숫돌 제단 아래서 무릎 꿇어 회개의 눈물을 뿌립시다.



성경교단 강원지부 남전도연합회와 장로회연합수련회를 7월3-4일까지 충천남원동수리 휴천수당원에서 갖고 성결의 신앙을 체험했다.

큰 손

(한나미용실)

민물의 딸이 본인의 자에서 하나하나 정성들인 음식으로 형제자매들을 모시고자 만남의 장소 마련했으니 마음과 육신을 성결케 하는 이곳 모든이의 건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표 여 정 임 집사

· **큰 손 메뉴**

황구영양탕 녹각삼계탕
무침(15가지 약초물로 빚음)

■ 내방객서 한끼 개인 단체편
■ 영양탕 전문 20년 외길 주무장 초빙
연락처: 033-253-1869
위 치: 충천시 후평2동 689-2동5번
공무파라트 B동 맞은편

귀금속 예술전문점

솔로몬

저렴한 가격
기독교인 환영합니다

대표 이익래 · 조순옥 집사
(순복음충천교회 엘리트인강단 소속)

오시는 길: 충천이도파 백화점 내 1층
☎ (033) 243-1423 / 243-3634

알로에마임

대표 이판호 권사 · 윤영순 집사

위 치: 충천시 효자3동 756-3
☎ (033) 242-2665 / 241-2489 / 242-2666